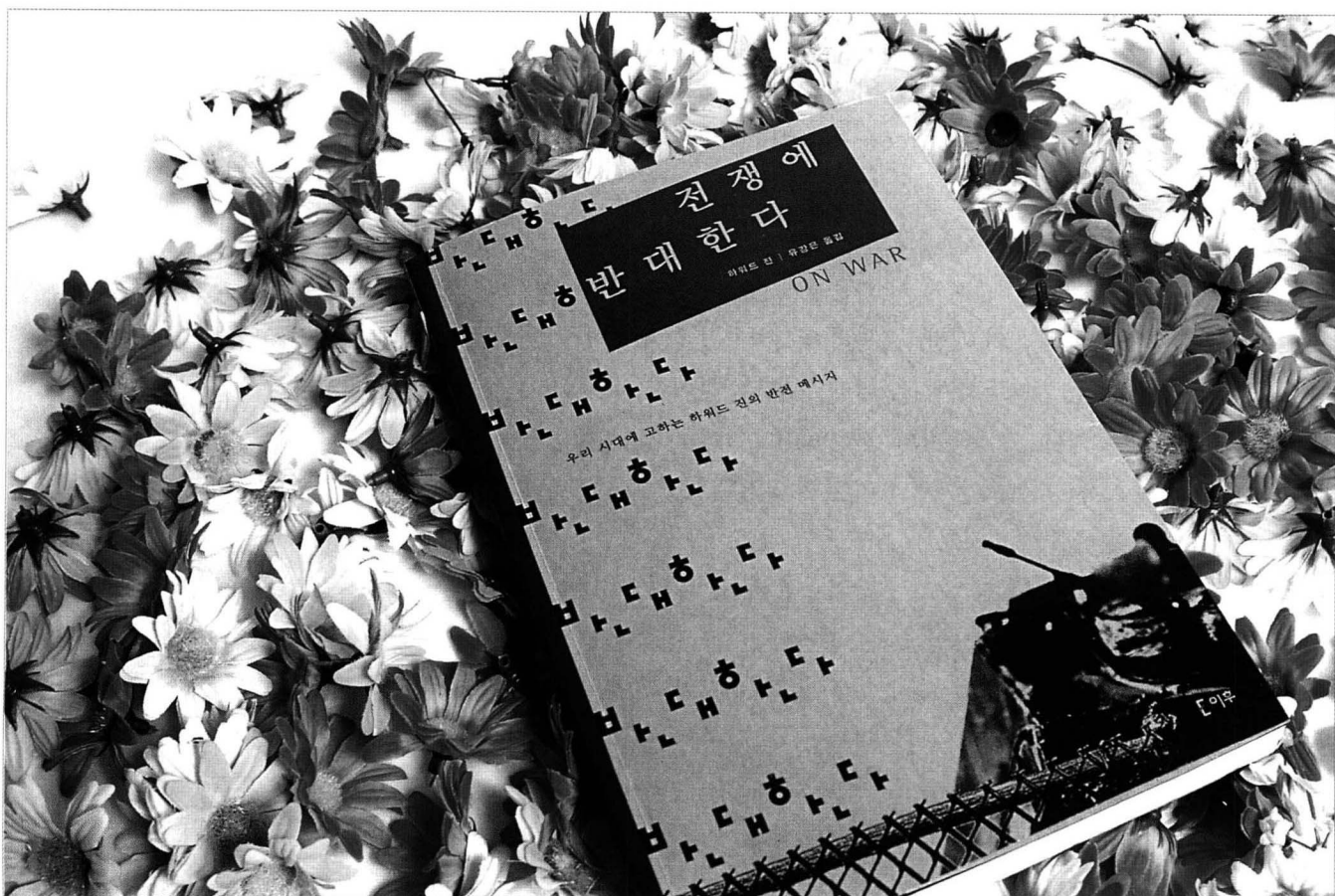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부도덕하다. | 미국의 대표적 좌파 지식인이자 실천적 지식인인 하워드 진은 《전쟁에 반대한다》에서 ‘모든 전쟁은 민간인에 대한 전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고 규정한다. | 흔히 전쟁은 불행한 일이지만 명분이 있다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 하지만 그는 이런 의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국가권력자들의 이해에 따라 조직적으로 날조되어 온 이념인지 신랄하게 비판한다. |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인 미국이 개입한 2차 세계대전, 리비아, 베트남,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전쟁 등을 성찰하며 부도덕성과 부당성을 고발한다.



하워드 진 지음 | 유강은 옮김 | 이후 | 288쪽 | 값 13,000원

하워드 진은 먼저 미국이 ‘미국 예외주의’라는 원칙 아래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후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디스코텍 폭탄사건의 보복으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공습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민간인 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9·11테러를 저지른 대상국으로 지목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공격 역시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도 마찬가지다. 정작 배후로 지목한 카다피, 빈 라덴, 후세인은 죽지 않았다.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라는 점에서 미국

과 그들 나라는 차이가 없다. 오히려 테러리즘의 범위를 스스로 확대재생산시키는 것은 미국 정부라는 시각이다.

물론 테러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테러리스트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방식 역시 옳지 못하다고 하워드 진은 비판한다. 그가 보기엔 둘 다 비난받아야 한다. 균형 잡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왜 눈과 귀가 멀어 전쟁에 동의하게 되는가. 미국 정부는 얼핏 정당해 보이는 대의명분을 내세

운다. 하워드 진은 그 원인이 '권력층은 전쟁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얻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마키아벨리를 능가하고 있다. 적어도 그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하는 척은 하지 않았으나 현재의 미국 정부는 역사를 조작하고 언론을 이용해 위선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하워드 진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서 선제 공격을 한 쪽은 실은 미국이었으며, 중동의 다른 독재 정권을 뒤에서 후원한 것도 미국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하워드 진은 또한 미국의 국내정책이 정의와 법을 따르고 있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선 인도주의를 따르려 한 적도 단 한번도 없다고 지적한다. 오로지 정치적 힘과 경제적 이해, 힘의 과시에 이끌려왔을 뿐이다. 자국의 이익과 관련 있는 문제에 있어선 명분을 외치고 상관없는 일에 입을 닫는다. 하워드 진은 러시아군이 체첸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침묵했음을 상기시킨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부당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미국은 이라크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 을 가진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정부나 미국 정부나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더욱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 을 가진 국가이며 그런 일들을 이미 자행해 왔다. 뒤에서 무기를 몰래 팔아 전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라크 말고도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나라는 많다. 북한만 해도 그렇다. 굳이 이라크가 대상이 된 것은 석유를 가진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욕심에서 기인할 뿐이다.

《전쟁에 반대한다》에서 하워드 진은 구체적이고 신랄한 목소리를 낸다. 하워드 진이 2차대전 당시 참전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43년 전투기 폭격수로 전쟁을 겪었다. 파시즘을 물리친다는 이념으로 무장한 2차대전을 그는 정당한 전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그는 깨닫는다. 전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한 전쟁임을 내세운 이유들도 하나같이 모순을 품고 있었다. 자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외의 다른 나라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용인될 만한 일인가. 또 2차대전은 명분 있는 전쟁으로 알려져 왔다. 민주주의와 유대인을 구하겠다는 정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내부의 민주주의는 전시라는 이유로 무너졌고 애초에 '인종청소' 를 계획하지 않았던 독일을 전쟁으로 자극하여 극단의 결과를 초

래하였다고 하워드 진은 말한다. 때문에 그가 보기에 2차대전 이전이 낳은 최악의 결과는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 좋은 전쟁, 나쁜 전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나쁘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일지라도 그러하다는 게 하워드 진의 소신이다.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와 권력층을 동일시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실적인 가치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한테는 응분의 보상을 주고 경제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남을 돕고 사회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도태시킨다. 이상주의는 발을 붙일 수 없고 현실적인 것이 미덕이 된 것이다. 이런 탓에 국민들은 자신과 권력자들의 위치가 같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하워드 진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같지 않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시민이나 백만장자나 홈리스나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은 우릴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진 않지만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국가간의 문제는 결코 전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워드 진은 말한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전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이 단지 반미적인 구호로만 각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전이라는 거대분모를 포함할 때 이 비판은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반전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이들은 '인간 방패' 를 자처하면서 속속 이라크로 입국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닌 비폭력적인 자세만이 독재나 불의를 그들과 같지 않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일 뿐임을 이 책은 증언하고 있다. **주필**

강경희기자